



농촌진흥청, 한·유럽 과학기술 협력으로 미래 농업 새 지평

- 프랑스 툴루즈 'EKC 2026' 농업 특별세션 개최...K-농업기술 소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식물바이오·AI 곤충 소재·바이오플라스틱 소개 및 KIST 유럽연구소와 MOU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제18회 유럽-한국 과학기술 학술대회(EKC 2026)'에서 농업 특별세션을 운영하고, 유럽 연구기관과의 미래 첨단 농업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럽-한국 과학기술 학술대회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인 과학기술인과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논의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학술 교류 행사다. 올해는 '인공지능이 이끄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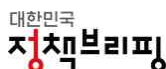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이번 대회에서 국내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 수준의 K-농업기술을 현지에 알리며 공동 연구개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김남정 부장이 이끈 농업 특별 세션은 '그린·스마트 농업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식물 기반 바이오소재 및 그린바이오 산업, ▲인공지능(AI) 융합 초정밀 곤충 바이오소재 생산 기술, ▲화석연료를 대체할 농업용 <바이오플라스틱> 등 핵심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현지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다.

더욱이, 행사 기간 중 독일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업 분야 융복합 기술 공동연구의 기반도 마련했

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EU)의 다자간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을 비롯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세계적인 연구진과 함께 설계·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최광호 기술협력국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우수 농업기술과 성과를 유럽 현지에 선보이고, 현지의 과학 인재들과 교류·협력 관계를 맺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유럽과의 기술적·인적 협력 벨트를 바탕으로 우리 농업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기후변화와 농촌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민경 (063-238-1110)
		담당자	연구사	최은정 (063-238-1120)
공동	국립농업과학원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	책임자	연구관	원소윤 (063-238-4606)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담당자	연구사	김다연 (063-238-3050)



□ 목 적

- 농업 특별 세션 운영을 통해 국제 연구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유럽 한인과학자 네트워크를 확대

□ 2026 학술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6. 7. 20.(월) ~ 7. 23.(목), 프랑스 툴루즈
- 주제 : AI가 이끄는 과학기술의 미래
- 주관 : 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ASCoF) * 청은 '브론즈' 등급 스폰서로 참여
- 참여 규모 : 대학, 연구기관, 정부 기관 등 약 1,000 여명

□ 주요 내용

- [7.20~23] 홍보 전시 부스 운영 및 젊은 과학자 대상 채용 정보 공유
 - * 우리 청 성과사업 전시(영상, 책자 등) 및 채용 정보 상시 제공 세션 운영
- [7.21(화)] KIST 유럽연구소와의 MOU 체결식 및 업무협의회
 - * 영농형 태양광 설계 기준 및 농촌 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등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7.22(수)] 농업 특별 세션 운영 및 주요 인사 간담회
 - * 농업 분야 발표 10건, 우리 청은 바이오소재, 바이오플라스틱 등 발표
 -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재유럽한인협회장, 호라이즌 유럽 과제 참여 연구자 등과의 간담회

□ 기대 효과

- 해외과학자와의 R&D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 인재 영입 기회 마련